

씨티씨바이오, 2022년 매출액 1,652억 원...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 117억 원, 60억 원...2015년 이후 7년 만의 흑자전환

▶ 동물사료 세계 최대 미국시장 진출 및 조루·발기부전복합치료제 품목허가 통해 지속 성장 이어갈 것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대표이사 이민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2년 경영실적 집계결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씨티씨바이오의 2022년 연결 기준 경영실적은 매출액 1,652억 원, 영업이익 117억 원, 당기순이익 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경영실적은 2021년과 비교해도 매출액 17.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모두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주력제품인 씨티씨자임(CTCZYME), 박테리오파지(Bacterio phage)의 수요 급증 ▲글로벌 제약사 협업을 통한 원료의약품 유통 매출 증가 등이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2021년 하반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후 비즈니스 구조 개선, 영업정책 활성화 등 수익성 확대를 위한 내부 체질개선을 진행한 점이 2022년에 그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 상승과 동물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씨티씨바이오의 동물약품 사업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아시아최초로 개발된 씨티씨자임이 큰 원인이 됐다. 씨티씨자임을 첨가하면 옥수수보다 가격이 훨씬 싼 싼데도 가축들이 잘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던 옥수수 찌꺼기, 야자수열매 껍질 등이 활용 가능 해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최근 시장에서 고곡물가가 유지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동물용 사료첨가제인 박테리오파지는 내성균이나 체내 잔류가 발생하지 않는 차세대 항생제로 시장에서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씨티씨자임(CTCZYME): 가축들이 잘 소화시킬 수 없는 곡물 사료 내 성분 분해를 촉진해 사료 흡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료용 소화효소제

현재 회사는 세계 최대 사료 시장인 미국 진출 본격화를 위해 지난 달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해외 매출 증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제약사업 부문에서도 지난해 임상3상을 성공한 조루발기부전 복합제의 사전점검(Pre-Audit)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품목허가를 예정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약 2,500억 원 규모로 예측되며 상반기 식약처 품목허가 이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023년은 사료사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의약사업의 매출 본격화를 통해 2022년의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대표이사는 “2022년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매출증대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며 “향후 주력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다각적인 신규 사업 개발로써 승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경상북도 안동 특구에서 국책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CBD(칸나비디올, cannabidiol) 사업을 올해 내 국책과제 수행으로 완료하고,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제품화, 상업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전년 동기 대비 비교표>

억 원, %

구분	2022년	2021년	yoy
매출액	1,652	1,403	18.2%
영업이익	117	-29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60	-80	흑자전환

주) 연결 기준